

최인호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공동체의 의미*

백 조 아** · 서 세 림***

요약

이 글에서는 최인호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공동체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최인호는 체제가 구축한 총체성 바깥을 사유하며, 지식인 엘리트 중심의 교양 담론에서 벗어난 1970년대 청년문화를 소설 속에 적극적으로 재현했다. 소설 『바보들의 행진』의 대학생 청년은 청년문화 현상을 경유하며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탐구한다. 이 작품에 나타난 지식인 엘리트로서의 지위와 불화하는 대학생 청년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바보들의 행진』은 1970년대 유신체제와 민족민주주의가 주도한 단일한 집단의 결속과 연대를 넘어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보여준다. 작품 속 인물들은 불완전한 관계와 일시적인 만남의 형태로 ‘따로 또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를 그린다. 대학생 청년은 청년문화의 향유와 비행위성을 통해 개별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모색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전망은 ‘기다림’의 대안적 시간성을 통해 고정된 형태가 아닌 미완의 과정으로 열려 있다.

최인호의 청년 서사는 비체제의 사유를 바탕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생산한다. 『바보들의 행진』에서 대학생 청년의 내면 의식은 소외된 문명으로만 귀결되지 않고, 사적 자율성과 공동체적 연대가 조화된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작품에서 발견되는 공동체의 계기를 통해 최인호 문학

* 이 논문은 2024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전반에 나타난 특수한 타자 인식을 해명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의미에 집중되어 온 최인호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1970년대 문학이 형상화하고 있는 공동체 표상의 다양성을 서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공동체, 대학생, 청년문화, 비행위성, 개방성, 기다림

목차

1. 서론
2. 청년문화의 출현과 차이에 기반한 공동체의 재구성
3. 문제적 대학생의 비행위성과 개방적 공동체 모색
4. '기다림'의 대안적 시간성과 미완으로서의 공동체
5. 결론

1. 서론

최인호는 1964년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여 대학 재학 중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견습환자」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전개한 1970년대는 유신체제의 공고화와 함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개인의 소외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였다. 최인호는 개발 독재의 압축적 근대화가 빚어낸 부정적 양상을 예리하게 포착했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국가주의적 동일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거리 두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적극적인 저항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민주화라는 과제를 중심에 놓고 시민 사회의 결속을 요구한 민족·민주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당대 문단은 최인호를 “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소설적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하면서도, 현실 참여에 소극적인 “개인적 도피 성향”을 드러내는 작가로 비판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¹⁾

최인호 문학을 둘러싼 상반된 평가는 『별들의 고향』 이후 대체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최인호는 스스로를 ‘비체제의 작가’로 인식하며,²⁾ “소설은 인간의 이야기”로서 “사람보다는 현실이, 주제가, 무엇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통해 자신의 문학적 행보를 설명했다.³⁾ 그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소설적 현재를 구성하기보다는, 급변하는 현실과 그 이면을 날카롭게 포착하며 다양한 문학적 실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문단 권력이 규정한 본격문학 and 대중문학의 위계적 구도를 해체하는 것을 넘어서, “한정적 인식의 틀을 생산하는 체계의 왜곡에 대한 비판”⁴⁾으로 이어진다. 이는 대학생 소설가 출신이라는 지식인 엘리트로서의 지위에서 이탈해, “비정상과 불일치의 가능성”⁵⁾을 내포하고 있는 1970년대 청년문화를 소설 속에 적극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1973년 10월 15일부터 1974년 5월 13일까지 『일간 스포츠』에 매주 연재된 최인호의 소설 『바보들의 행진』은 ‘통블생(통기타·블루진·생맥주)’으로 대표되는 청년문화의 스타일과 풍속을 전면화하여 재현하고 있으며, 메타 소설의 형식을 도입해 청년문화에 대한 작가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970년대 대중문화의 성장이 이루어지는⁶⁾ 과정에서 청년문화는 대중문화의 한 지류로서 등장했으며,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년을 문화적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주체로 새롭게 의미화하는 사건에 해당했다. 이 작품의 연재 기간 동안 김병익이 1974년 『동아일보』에 발표

1)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20, 297면.

2) 이문재, 「독자는 절대 속일 수 없다- 《문학사상》과 최인호-창사 30주년 특별대담」, 『문학사상』 351, 문학사상사, 2002, 133-134면.

3) 최인호, 『作家 노트』, 『바보들의 행진』, 예문관, 1974, 323면.

4) 서세린, 「합치라는 환영-대학생 담론과 1970년대 최인호 문학-」, 『사이間SAL』 32,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186면.

5) 위의 글, 173면.

6)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1970년대 청년문화/문학의 스타일과 소비풍속」,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419-420면.

한 「오늘날의 ‘젊은 우상’들」로부터 청년문화에 대한 논쟁이 점화되었고, ‘청년문화의 기수’로 호명된 최인호는 『한국일보』에 「청년문화 선언」을 게재하며 청년문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4·19 혁명을 기점으로 대학생 청년은 민족국가의 발전 및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진보에 앞장서는 지사적 집단으로 호명되어 왔으며,⁷⁾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1970년대 청년문화는 유신체제와 그 대항 의식으로 구축된 재야, 학생운동권 양쪽 모두로부터 퇴폐와 일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양극단에 있으나, 유신체제와 민족·민중주의는 ‘국민’ 혹은 ‘민중’이라는 단일한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 차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각자가 목표하는 ‘국가 만들기’를 수행했던 것이다.

반면, 최인호는 「청년문화 선언」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고전이나 권위나 남녀 간의 차별 따위를 인정치 않으려는” 총체성 바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노력의 갈등으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청년문화가 생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⁸⁾ 이는 동일성의 원리에 따라 ‘우리’와 ‘그들’을 위계화하는 공동체가 아닌, “이질성의 출현에 의해 매번 재구성되는 ‘특이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⁹⁾ 청년문화로부터 발견하는 것이다. 대학생 청년이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는 과정을 그려낸 소설 『바보들의 행진』은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최인호 문학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공동체의 의미를 분석하고, 작품에서 개별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계기를 탐색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인공 병태와 영자

7) 소영현, 「대학생 담론을 보라·4·19 정신의 소유권에 관한 일고찰」, 『문학과사회』 23(1), 문학과지성사, 2010, 263-266면.

8) 최인호, 「청년문화 선언」, 『한국일보』, 1974.4.24., 5면.

9) 고봉준, 「근대문학과 공동체, 그 이후·외부성의 공동체를 위한 시론」, 『상허학보』 33, 상허학회, 2011, 58-59면.

는 청년문화의 향유를 시발점으로 삼아 지식인 엘리트로서의 정체성과 불화하며 비행위적 태도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탐색한다. 대학생 청년이 마주한 정체성 형성의 문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특이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있음’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모색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전망은 ‘기다림’의 대안적 시간성을 통해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닌 미완의 과정으로 열려 있다.

『바보들의 행진』은 『별들의 고향』에 이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신문 연재소설로서, 영화로도 각색되어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단독 연구는 웃음의 의미를 중심으로 텍스트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의 양상을 분석한 것이 유일하다.¹⁰⁾ 혹은 신문 연재의 형식 아래 『별들의 고향』과 비교하거나,¹¹⁾ 1970년대 청년문화 및 대중소설과의 연관성 속에서 작품의 특성을 조명하는 논의가 있었다.¹²⁾ 이외에는 영화화된 배경에 따라 장르적 변용과 시나리오 각색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¹³⁾ 주목할 지점은 기존 논의

-
- 10) 김원규,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유희하는 대학생 주체(들)·웃음의 의미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78,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193-221면.
- 11) 김경양, 「최인호의 신문연재소설 연구-『별들의 고향』, 『바보들의 행진』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임소영, 「최인호 대중소설 연구-『바보들의 행진』, 『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2) 김성환, 「1970년대 대중서사의 전략적 변화」,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53-192면.; 김지윤, 「최인호 문학에 나타난 개인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박수현, 「1970년대 한국 소설과 망탈리테」,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송은영, 앞의 글, 419-445면.; 심재욱, 「최인호 문학의 명량성과 미학적 정치성 연구-1970년대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학의 문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윤정화, 「1970년대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미국문화』, 『비평문학』 53, 한국비평문학회, 2014, 155-182면.; 최은영, 「1970년대 대중소설의 ‘청년’ 표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13) 강숙영, 「최인호 원작 영화에 나타난 ‘고래’의 의미와 김영 양상-『바보들의 행진』, 『고래사냥』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70, 한국비평문학회, 2018, 7-30면.;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영화적 변용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357-381면.; 보메이, 「1970년대의 검열 정책과 대중 저항으로 대중소설 『바보들의 행진』의 영화화 과정에서 창조된 ‘영철’ 캐릭터에 대한 연구」, 『인문과 예술』 16, 인문예술학회, 2024, 155-179면.; 안

에서 『바보들의 행진』은 당대 사회의 지배 담론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학생 청년 인물의 저항 의식을 발견하거나, 혹은 인물들의 일탈을 불완전한 저항의 형식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파악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의 의미화에 집중되어 있어, 체제가 구축한 총체성 바깥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한 최인호 소설에 대한 탐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심재욱과 최은영의 연구는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인물들의 ‘무목적적 행위’ 혹은 ‘무위’를 필두로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심재욱은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대학생 청년은 소비문화에 기반해 잉여쾌락을 탐닉하는 ‘무목적적 주체’로서,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대중과의 계급적 간극을 좁히고 평등의 감각을 환기함으로써 미학적 정치성을 수행한다고 보았다.¹⁴⁾ 최은영은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대학생 청년이 스스로를 ‘바보’로 칭하면서 정치성을 위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무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개별 주체이자 감정의 공유를 통해 동세대 간의 연대 의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¹⁵⁾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공동체적 상상력은 통합적 실체로서의 공동체 개념을 넘어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장-뤽 낭시는 공동체가 동일한 이념이나 목적에 기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조건 자체가 자신의 외부로 열려 있는 외존(exposition)으로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이미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¹⁶⁾ 조르조 아감벤 또한 어떠한 고정된 정체성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선영, 「최인호의 소설과 각색 시나리오의 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수향, 「1970-80년대 최인호 소설과 영화의 각색 상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장종주, 「1970년대 최인호 소설의 뉴 웨이브 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전지은, 「서사 텍스트와 매체의 은유적 역학관계 연구-1970년대 소설과 영화의 매체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4) 심재욱, 앞의 글, 132-144면.

15) 최은영, 앞의 글, 113-124면.

임의적 특이성으로서의 개인들이 출현하는 사건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탐색했다.¹⁷⁾ 이러한 공동체는 포섭과 배제의 이분법적 논리로 작동하는 기존의 공동체에 우발적인 징후로 떠오르며 정체성 정치에 균열을 가하는 특징을 보인다.¹⁸⁾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대학생 청년은 자율성을 담지하고 있으면서도, 불완전한 관계와 일시적인 만남의 형태로 공동체의 의미를 구현한다. 인물들의 내면 의식은 유신체제의 동원과 대항 담론의 이중적 압력 속에서 고정된 정체성으로 수렴되지 않으며, 이것은 혁명의 부재나 자폐적 내면으로의 도피가 아닌 ‘따로 또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색으로 이어진다. 이는 1970년대 민족문화론과 리얼리즘 문학이 기획한 역사적 주체의 형성과 집단적 연대와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위에서 발화되는 문학”이 아닌 “공동체 자체를 생산하는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¹⁹⁾ 따라서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공동체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사적 자율성과 공동체적 연대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려는 최인호 문학 특유의 타자 인식을 해명할 수 있다. 이는 주체로서의 개인의 의미에 집중되어 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최인호 문학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점을 마련하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1970년대 문학이 형상화하고 있는 공동체 표상의 다양성을 서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6) 장-뤽 낭시, 박준상 역, 『무위의 공동체』, 그린비, 2022, 81-87면.

17) 조르조 아감벤, 이경진 역, 『도래하는 공동체』, 꾸리에북스, 2014, 8-11면.

18) 위의 책, 116-120면.

19) 고봉준, 앞의 글, 34면.

2. 청년문화의 출현과 차이에 기반한 공동체의 재구성

『바보들의 행진』은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일간 스포츠』에 연재된 대중소설로 총 3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콩트 형식은 시간적 격차를 두고 독자에게 제공되는 신문 연재의 특성상 인물과 배경을 공유하면서도, 독립된 사건의 진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략에 해당한다. 특히 병태와 영자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문화에 대한 재현은 대학생 청년이 마주한 자기 정체성의 문제와 관계적 경험으로 구체화되며, 파편적 형식 속에서 서사의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이는 소설 전반에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의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바보들의 행진』의 첫 번째 에피소드 「병태의 머리칼」에서는 병태와 영자가 청년문화를 향유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며, 이는 외적 스타일을 중심으로 재현된다. 병태는 머리를 장발로 기르고, 학원 스포츠의 유행을 의식해 치지도 못하는 정구채를 들고 다니거나, 읽지도 않은 『갈매기의 꿈』과 『어린 왕자』 책을 뒷주머니에 꽂고 다닌다. 영자 또한 긴 생머리에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고고춤을 추러 다니거나, 병태에게 생맥주를 사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병태와 영자는 ‘장발, 청바지, 고고춤, 생맥주’ 등으로 상징되는 청년문화의 대표적 스타일을 향유하는 대학생 청년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병태의 머리칼」에서는 순경에 의해 병태의 머리칼이 강제로 잘리는 장발 단속의 현상이 재현된다. 현대의 전체주의는 예외상태를 통해 정치 체제에 통합시킬 수 없는 모든 범주의 시민들을 포섭과 배제의 원리 아래 재단하는 통치술을 자행한다.²⁰⁾ 박정희 정권은 경제 제일주의의 성공을 위해 제도적 합리성과 문명화를 기반으로 한 인위적 공동체 형

20) 조르조 아감벤, 김향 역, 『예외상태』, 새물결, 2009, 13면.

성을 추진했으며,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교양을 대량 공급하고 문화 정치를 주창했다.²¹⁾ 그러나 개인의 실질적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고, 대학생 청년은 국가 주도의 근대화를 실천할 첩병으로 인식되었다. 청년문화 역시 반체제 운동으로 간주되어 1971년 ‘퇴폐풍속단속령’을 통해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²²⁾ 소설에서는 청년문화와 같은 이질성의 출현을 국가 주위적 동일화 전략 속에서 단속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내부적 통일성으로 용해시키는 방식을 비판한다.

최인호는 동일성의 원리에 기초한 인위적 공동체를 비판하며 이를 “순도 1백%의 사회”라고 표현했다. 대신 그는 불순물로 취급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³⁾ 이는 “문화는 생활 그 자체이지 선택된 개념”이 아니라는²⁴⁾ 청년문화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청년문화가 퇴폐인지 저항인지의 여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총체성을 지향하는 인위적 공동체 내부에서 청년문화와 같은 이질적 요소들을 어떻게 ‘있는 것’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1) 둘은 묵묵히 걸었다.

『유에게 술 사줄게. 나 돈 좀 있어.』

『그냥 걸어. 오늘은 그냥 걸기만 하자!』

『왜 머리칼 땀에.』

『아니. 모든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 생각 안 해본 게 십 년도 넘어가는 것 같아.』

21) 천정환, 「자기계발 혹은 실존을 위한 책읽기-‘60년대식’ 독서와 자아의 운명」,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상상, 2012, 421-422면.

22) 주창윤,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3), 언론과 사회, 2006, 92면.

23) 최인호, 『최인호 에세이집』, 주부생활사, 1976, 73-74면.

24) 최인호, 「청년문화 선언」, 앞의 글, 5면.

『그래. 우선 네 모자부터 사고. 그리고 우리 생각하면서 걸어. 나도 생각 안 해본 게 십 년도 넘게 되는 것 같아서 말야.』²⁵⁾

(2) 어쨌든 모두 옷을 벗으니 가관이다. 삼삼하다. 털 뿜힌 닭처럼 다들 벌거벗고 행진들을 시작하였다. 『바보들의 행진』이냐고. 원 천만에 『나체들의 행진』이다. 새마을 영화도 『아내들의 행진』이라고 나온다는데 왜 그렇게 『행진』자 들어가는 제목이 많은가.

『이새끼들. 똑바로 걸어라. 손으로 가리지 마. 가리지 말어. 누구 왕년에 그것 안 가져 본 녀석 있어. 똑바로 걸어.』

숫제 반말이다. 그러나 할말 없다. 옷을 벗으니 꼴된다. 어딘지 꼴려서기가 꼭 죽는다.²⁶⁾

인용문(1)의 「병태의 머리칼」에서 병태는 머리칼을 잘린 뒤 십 년도 넘게 안 해본 생각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영자와 함께 거리를 걷는다. 반면, 인용문(2)의 「병태의 신체검사」에서 청년 남성들은 군인들의 지휘에 따라 나체로 행진을 하며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는 “바보들의 행진” 혹은 “나체들의 행진”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유신체제가 경제 성장을 위한 국민의 집단적 동원을 목적으로 제작한 선전물에서 사용한 수사와 연결된다. 인용문(1)의 ‘걷기’과 인용문(2)의 ‘행진’은 상반된 움직임으로, 똑같은 걸음걸이로 박자에 맞추어 걷는 ‘행진’과 같은 집단적 운동성에 비해 무목적적이고 정처없는 ‘걷기’는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²⁷⁾

한편, 영자는 병태의 머리칼을 근사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잘린 머리칼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술을 사겠다고 제안하지만 병태는 이를 거절한다. 청년문화를 경유한 정체성의 표현을 긍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

25)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예문관, 1974, 29면. ; 본문에서 인용 시 원문의 표기를 따르되,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26) 위의 책, 167면.

27)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예코리브르, 2011, 143-157면.

는 병태와 영자의 소통 방식은 고압적으로 명령을 하며 복종을 강제하는 군인들의 태도와 반대된다. 이러한 관계는 무차별적 평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존재가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의적 특이성으로서의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형상에 가깝다.²⁸⁾ 따라서 장발 단속 이후 전개되는 병태와 영자의 '견기'는 목적지를 상징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로 동행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차이와 다양성이 수용되는 관계를 상징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스펙터클은 전통적 가치의 해체나 정체성의 위기로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역설적으로 진정성의 논리에서 벗어나 임의적 형상 그 자체에 귀속될 수 있는 토대로 작동한다.²⁹⁾ 1970년대 청년문화는 이러한 세속화의 복합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청년문화는 소비의 형식을 통해 다양한 삶의 양식이 분화될 수 있게 했으며, 고정된 정체성을 강요하는 사회화의 흐름 바깥을 상상할 수 있는 틈새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유신체제의 정치경제적 동원 논리와 자본주의 생산 체계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실현되었다. 「영자의 코우트」와 「장난감 시대」에는 청년문화의 양면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영자는 지금 자기가 검정빛 코우트 때문에 이처럼 우울하다는 것을 얘기하였다. 꼭 입고 싶은데 집에서 사주지 않아서 이처럼 슬프다는 것을 얘기하였다.

『가자.』

얘기를 다 듣자 병태가 소리를 질렀다.

『어딜 가, 가긴.』

『검정빛 코우트를 보러 가자.』

『애가 미쳤니. 돈도 없으면서.』

『가서 보기라도 하지 뭐. 그리고 한 달 후에 사줄게. 그때까지 팔지 말

28) 조르조 아감벤, 『도래하는 공동체』, 앞의 책, 9면.

29) 위의 책, 68-74면.

아 달라고 부탁을 하자.』

『한 달 후에는 뭐 공돈이 생기니.』

『아르바이트하지 뭐. 영자의 검정빛 코우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정교사 하지 뭐.』³⁰⁾

영자는 학교 앞 양장점에 파는 검정빛 코트를 갖고 싶어 하지만, 이를 사치로 여긴 어머니는 김치나 연탄 같은 생필품이 우선이라며 구매를 허락하지 않는다. 병태가 장발 스타일을 고수했다면, 영자는 옷에 대한 소비 욕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다. 영자가 보여주는 과잉된 소비 욕구는 속물성에 대한 풍자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단순히 희화화되기 어려운 시대적 의미를 지닌다.

유신체제를 중심으로 한 관변 담론은 청년문화를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기치 아래 통제했으며, 당대 지식인과 대학 언론 또한 청년문화를 속물적이고 탈정치적인 문화로 간주했다.³¹⁾ 반면, 최인호는 이화여자대학교 주변에 양장점이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대생들을 물질주의에 경도된 청년문화의 전형으로 낙인찍고, 지식인 엘리트로서의 직무 유기의 책임을 느끼게 하는 사회 풍조를 비판했다.³²⁾ 따라서 소설 속에서 과장스러운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영자의 소비 행위는 청년문화를 ‘사치’와 ‘낭비’라는 부정적 기호로 상징하고, 대학생 청년을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체화하려는 1970년대 지식인 엘리트 중심의 교양 담론을 탈구축하는 서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병태가 영자에게 검정빛 코트를 사주겠다고 선언하는 장면 또한 연애 감정의 차원에서만 해석되지 않는다. 병태는 영자의 소비 욕구에 대해 사치스

30)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앞의 책, 41면.

31) 김원, 「유신의 금기를 넘어선 청년문화-대중문화와 청년문화에 담긴 시대의 욕망」, 권보드래 외 4명, 『1970 박정희 모더니즘-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상상, 2015, 274-277면.

32) 최인호, 『최인호 에세이집』, 앞의 책, 36면.

럽다는 사회의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코트를 사주겠다고 약속한다. 영지는 비록 코트를 구매하는 것에 실패했을지라도, 미래의 자녀에게는 그들이 입고 싶은 옷을 구매해 주겠다고 다짐한다. 병태와 영지는 소비 행위에 대한 교정을 시도하지 않고, 이를 개별적 욕망으로 수용하는 관계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생 청년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난감은 실제 물건보다 축소되어 그러나 축소되어진 것만큼 더욱 정교한 장난감들이었기 때문에 아기 인형은 진짜 사람처럼 보이고 있었다.

『장난감은 풍요하구나, 애.』

언제나 바보 삼 형제를 고르면서 한숨을 쉬었다.

『왜 장난감은 많을까. 쓸데없이 장난감은 너무 많아.』

『글쎄』

병태가 웃었다.

『왜냐하면 장난감은 귀여우니까. 순하니까. 다정하니까. 태엽만 주면 걸어가고 말이 없거든. 어때 너나 나나 녀이 없는 인형과 다를 게 없어.』³³⁾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의 가능성은 낭만적으로 긍정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적·군사적 긴급 사태와 경제적 긴급 사태가 중첩되어 작동하는 경향을 보인다.³⁴⁾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 역시 유신체제의 정치경제적 집산화 논리 속에서 추진되었으며, 이는 청년문화가 형성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위에 인용된 「장난감 시대」에서는 분유 파동을 통해 국가가 주도한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가 아이들의 굶주림마저 외면하는 체계라는 것을 비판한다. 병태와 영지는 분유를 구하지

33)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앞의 책, 216면.

34)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앞의 책, 36면.

못하고, 영자의 조카에게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가게로 향한다. 이때 병태는 자신과 영자가 “뉘이 없는 인형”과 다름없다고 자조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 생산된 아기 인형은 “진짜 사람”처럼 보인다. 가게에 진열된 장난감의 풍경은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면서도, 유신체제가 세계를 생산성과 효율성에 복무하는 도구로 수단화해 왔음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병태와 영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지는 때”³⁵⁾는 물질적 삶의 자유로운 향유가 가능하면서도, 자본주의 권력 체제라는 구조적 한계 내에서 개인의 고유성을 복권하는 의식적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병태와 영자가 견지하고 있는 비판적 의식은 대중 소비문화의 일환인 청년문화를 통해 공동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로 작동한다.

1970년대 청년문화의 출현은 유신체제의 동일성 논리에 균열을 가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했다. 이는 『바보들의 행진』의 핵심 소재로 채택되어 대학생 청년의 재기발랄한 일상을 그려내는 에피소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병태와 영자는 체제의 억압 속에서도 청년문화를 향유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탐색하고, 서로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관계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물질적 풍요 속 개인의 소외 문제를 환기하며, 청년문화 또한 자본주의적 소비 구조와 분리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청년문화의 향유를 통해 탐색되는 자유주의는 포괄적 배제의 논리나 자폐적 내면으로 고착화되지 않고, 차이의 인정에 기초한 관계의 형식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최인호 소설이 재구성하는 공동체의 조건을 드러낸다.

35)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앞의 책, 215면.

3. 문제적 대학생의 비행위성과 개방적 공동체 모색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대학생 청년은 청년문화를 향유하면서도, 데모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지식인과 대학 언론으로부터 정치적 무관심으로 비판받았으며, 1970년대 청년문화가 현실 참여 의식을 내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배격된 담론의 지형과도 연결된다.³⁶⁾ 그러나 당대의 시선에서 ‘문제적’이라고 규정된 대학생 청년의 태도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은 유신체제의 동일화 전략에 포섭되기를 거부하면서도, 지식인 엘리트 중심의 민족·민중주의가 지향한 저항의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는 대학생 청년이 마주한 정체성의 혼란을 대변하며, 지사적 집단으로 호명되어 왔던 대학생 공동체의 분화를 드러낸다. 「병태의 구역질」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제군이 만일 유토피아적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 두려고 한다. 정치와 사회에 관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소수의 현명한 자와 고결한 자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전제정치를 하는 데 있다. 이 소수자는 진실하고 순수한 귀족계급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들을 배출시키려면 성품이 고귀한 남자와 지능이 우수한 부인과의 우종결혼(優種結婚)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 제안이 나의 유토피아이며 플라톤의 이상국가관이다.-쇼펜하우어〉

병태가 이 학기 동안 노트한 것은 단지 쇼펜하우어의 개소리 한 귀절밖에 없었다.³⁷⁾

병태는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으나, 학생들의 데모를 진압하기 위한 유신체제의 긴급 조치 아래 휴교령이 내려져 있다. 이는 대학이 정치적 통

36) 김원, 「유신의 금기를 넘어서는 청년문화-대중문화와 청년문화에 담긴 시대의 욕망」, 권보드래 외 4명, 앞의 책, 276면.

37)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앞의 책, 65면.

제 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1970년대의 대학이 조국 근대화의 실용적인 도구로서의 대학생을 길러내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 전환되었음을 드러낸다.³⁸⁾ 병태가 유일하게 노트에 적어둔 필기가 쇼펜하우어의 ‘유포피아론’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선별된 엘리트가 지배하는 이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한 혈통과 능력을 기준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경계선을 구획 짓는 배제적 상상력에 기반한다. 병태는 쇼펜하우어의 ‘유포피아론’을 “개소리 한 귀절”이라고 일축한다. 이는 병태가 대학이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이상적 엘리트를 구성하기 위해 기만적인 일체성과 계도적 사명을 강요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병태는 유신체제의 폭압적 정치에 대해 비판 의식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휴교령이 내려져 수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데모하는 대학생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기할 지점은 뒤이어 만난 졸업한 선배가 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데모 대신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고 병태에게 조언했을 때, 갑작스레 구역질을 하며 스스로를 “임신한 남자”³⁹⁾와 같은 경계적 존재로 명명하는 것이다. 이는 유신체제와 대항 담론의 구도에서 어느 쪽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위치는 역설적으로 대학생 청년의 내면 의식을 고정된 정체성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적 권위를 답습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인호는 1970년대 대학생 청년이 “사화산이 아니라 휴화산”이며, 그들의 “가슴 속에 존재하는 유교적 보수 개념과 현실 개념의 충돌 때문에 차라리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서술했다.⁴⁰⁾ 청년문화가 엘리트에 의해

38) 오제연, 「전인적 지도자 양성에서 고급 기술인력 양성으로-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의 대학의 위상 변화」, 『역사비평』 104, 역사비평사, 2013, 50-52면.

39)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앞의 책, 67면.

서 선도되지 않듯이, 대학생 청년도 자신을 엘리트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집단적 위계를 좁히려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⁴¹⁾ 따라서 문제적 대학생이 보여주는 비행위성은 단순히 수동적 태도가 아닌, '~이지 않을' 자신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무위의 태도로 독해된다.⁴²⁾ 이는 억압받는 정체성을 선언하거나 승인받는 저항의 방식과 구별되며, 국가 권력이 제도적 언어로 대응할 수 없는 잠재적 위협으로 작동하며 임의적 존재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능케 한다.⁴³⁾ 따라서 문제적 대학생의 비행위성은 이들을 둘러싼 정체성 정치에 균열을 가하고, 그 자신이 속한 대학생 공동체 안/밖의 위계적 구분을 해체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A·B·C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4월 개편 프로로 젊은이의 합창이라는 프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로는 바로 대학생인 여러분의 장래의 희망, 진취적인 사고방식, 기성세대への 불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내드리는 신선한 프로인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략...)

『장래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

방송국 기자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누구 대답할 사람 없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오라, 저기 계신 분.』

방송국 기자의 눈이 병태와 마주 닿았다. 마이크가 병태의 입에 들이밀어졌다.

『올해 몇 학년이십니까?』

『모릅니다.』

병태가 대답했다.

40) 최인호, 「청년문화 선언」, 앞의 글, 5면.

41) 위의 글, 같은 면.

42) 조르조 아감벤, 『도래하는 공동체』, 앞의 책, 54-59면.

43) 위의 책, 118-119면.

『무슨 과입니까?』

『모릅니다.』

병태가 대답했다.

『허어 참, 이러지 맙시다. 요새 흔히들 운위되는 청년문화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병태가 대답했다.⁴⁴⁾

「병태의 침묵」에서 병태와 학생들은 “젊은이의 합창”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병태의 우정」에서 병태와 친구들이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소위 ‘사자 직업(사字職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면, 「병태의 침묵」에서는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시키기를 거부한다. 또한 병태는 청년문화에 대해 “모릅니다”라고 답하며 청년문화 논쟁에서 대학생 청년이 개인의 자율성과 집단의 이익 사이에서 당위적 역할을 증명해야 했던 당대의 맥락으로부터 비켜선다. 어떠한 행위를 수행함은 특정한 현실성에 해당하는 한 가지 의미에 종속되는 것으로, 존재를 고정된 정체성 안에 위치시킨다.⁴⁵⁾ 따라서 침묵이라는 비행위성은 암묵적 저항의 의미를 넘어서,⁴⁶⁾ 대학생 청년이라는 개별 주체 혹은 대학생 공동체가 인터뷰를 통해 존재적 통일성을 전제하게 되는 것을 지양하여 또 다른 위계질서를 구축하지 않는 태도이다.

인터뷰가 무산된 후, 취재진은 대학생 청년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자리를 떠난다. 그러나 병태와 학생들은 입장에서 비롯된 불통에 주목하기보다, 당황한 취재진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44)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앞의 책, 226-228면.

45) 조르조 아감벤, 『도래하는 공동체』, 앞의 책, 56면.

46) 최은영, 앞의 글, 118-120면.

흐르던 모습을 상기하며 그가 ‘좋은 사람’ 같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사회적 소속이나 지위를 기준으로 내집단과 타집단을 구분하는 위계를 넘어서 비본질적인 유대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공동의 존재 방식에 해당한다. 이어서 병태는 합창단원들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꽃들이 만개한 교정을 바라본다. 이 장면은 “젊은이의 합창”이라는 프로그램의 제목 및 실패한 인터뷰 상황과 겹치면서, 침묵을 통해 어떠한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수 있는 공동체의 잠재적 가능성을 상징한다. 이처럼 대학생 청년은 동일한 정체성에 기반한 집단적 응답이나 대표성의 형식이 아닌, 수평적 관계성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개방적 공동체의 단초를 보여준다.

침묵이라는 비행위성을 통해 제시되었던 공동체적 상상력은 「병태의 믿음」에서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구체화되며, 그 과정에서 지식인 엘리트로서 병태가 지닌 내적 모순이 함께 부각된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병태의 철학과 동기들은 대학생 신분을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이 시계를 훔쳤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부인하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가짜’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아세우거나 폭력의 명분으로 삼는 상황은 사회적 지위에 근거해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인식 구조를 드러내며, 학벌주의에 의해 작동하는 지식인 엘리트 집단의 허위성을 드러낸다.

『훔치지 않았다면 가. 뭘 그렇게 찢찢매고 있어. 난 네가 훔치지 않았다는 말을 믿는다. 가, 빨리 가, 설사 네가 훔쳤다 하더라도 빨리 가. 하지만 네가 훔치고서 가버린다면 넌 젊은 나이에 썩은 자식이야. 하지만 난 네가 훔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 빨리 가. 보아하니 넌 재수생인 모양인데 억울하면 내년에 이 학교 들어와서 당당하게 배지 달어. 나 같으면 내년에 죽을 정도로 공부해서 이 학교 톱으로 들어오겠다. 가, 꺼져. 귀찮아. 변명하려 하지 말어. 나이 든 사람처럼……가.』⁴⁷⁾

47)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앞의 책, 223면.

병태는 ‘가짜’ 대학생이 무고하다고 믿고, 친구들이 가하는 폭력으로부터 그를 구해낸다. 이를 통해 그는 대학이라는 제도적 정체성의 여부에 따라 타자를 판단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학벌 중심의 위계에 의해 형성된 내집단과 타집단의 경계를 해체한다. 그러나 병태가 ‘가짜’ 대학생에게 시험을 쳐서 당당하게 배지를 달고 대학에 들어오라고 말하는 장면은 공동체의 개방성을 모색하려는 태도와는 달리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를 여전히 정당한 통과의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낸다. 병태는 제도 바깥에 있는 타자와의 연대를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내면화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⁴⁸⁾ 그를 제도 내부로 소환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경계를 확장 짓는 양가적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병태가 지식인 엘리트 중심의 지배 체제를 재생산할 위험을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로티는 현실적으로 ‘우리’라는 개념은 인류보다 지역적인 범위에서 감각되며, 공동체적 연대는 ‘그들’이라고 생각되는 타자들을 ‘우리’의 영역에 포섭시키는 개방성의 모색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말했다.⁴⁹⁾ 이는 타인의 고통과 모욕에 대한 자신의 감수성을 의심하고, 현재의 사회 제도들이 이러한 고통과 모욕을 다루기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통해 가능하다.⁵⁰⁾ 따라서 병태는 역설적으로 대학생 공동체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밖의 경계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안에서부터 균열을 만들 수 있는 내파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식인 엘리트가 주도하는 인식론적 각성을 통해 연대를 조직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타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감수성을 통해 ‘우리’와 ‘그들’의 위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개방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명랑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특징으로 하는 신문 연재소설의 문법 속에서

48) 김원규, 앞의 글, 214면.

49) 리처드 로티, 김동식·이유선 역,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 사월의 책, 2020, 389-390면.

50) 위의 책, 402면.

도, 『바보들의 행진』에는 대학생 청년의 일상 속에 스며든 현실 정치의 일면이 돌출되는 에피소드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문체적 대학생은 유신체제의 동일화 전략과 지식인 엘리트 중심의 민족·민중주의 담론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경계적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들의 비행위성은 체제에 대한 순응도, 테모와 같은 직접적 행동도 아닌 ‘제3의 태도’로서 기존의 이분법적 구도 자체를 무화시킨다. 이러한 태도는 대학생 청년을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시키려는 담론적 압력으로부터 비켜서는 동시에, 개방적 공동체의 모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기다림’의 대안적 시간성과 미완으로서의 공동체

이 작품에 나타난 대학생 청년은 차이의 인정을 통해 공동체의 조건을 재구성하고, 폐쇄적 동일성에 기반한 위계적 구분을 넘어서는 개방적 공동체를 모색한다. 이는 소설 속에서 ‘우리들의 시대’라는 표현으로 명명되며, ‘기다림’이라는 독특한 시간성을 통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신체제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공동체 질서에 개인을 편입시키기 위해 체제에 대한 순응을 강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고유성과 각자의 삶이 지닌 시간성은 용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다림’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는 1970년대 시간 질서에 ‘멈춤’과 ‘공백’의 자리를 만들어내며 복합적인 의미를 구성한다.

『나는 나, 너는 너다. <그건 너>라는 노래가 왜 유행했는 줄 아니. 그건 너 하면 책임은 다른 사람 아닌 너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그건 우리>라는 개념에서 그건 너라는 단수 개념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병태는 병태. 나는 나다.』

『그래도 난 믿는다. 사람을 믿는다.』

병태가 대답했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눈 두 개에 귀가 두 개, 코 하나 가졌다고 사람인 줄 아니? 사람 얘기가 없다. 도대체 없다. 사람보다도 트로피가 판치고 있다. 대명사가 판을 치고 있다. 부자는 사람이기 이전에 나쁜 사람, 농민은 사람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 교수는 사람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 사장은 사람이기 이전에 나쁜 사람, 사원은 사람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 바걸은 사람이기 이전에 나쁜 여자, 아내는 사람이기 이전에 좋은 여자, 짱구 아버지 짱구, 짱구 아들 짱구, 짱구 할아버지 짱구, 짱구 손자 짱구 라는 소리인 것이다.』⁵¹⁾

병태와 친구들은 <그건 우리>가 아니라 <그건 너>라는 노래가 유행하는 정황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가 불가능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진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정서적 변화를 지적한다. 병태는 기존 공동체의 실패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무시한 채, 사회적 소속이나 지위를 중심으로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집단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구조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부족하게 하며, 불신과 냉소를 초래한다.⁵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태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병태와 친구들은 타자에 대한 믿음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신문을 파는 소년에게 신문값을 초과하는 오백 원을 주고 잔돈을 거슬러 올 것인지 내기한다. 소년은 잔돈을 돌려주며 병태의 믿음에 부응한다. 반면, 「병태와 가정교사」에서 병태는 빵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중학생 아이들이 돌아올

51)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앞의 책, 197-198면.

52) 박찬효는 1970년대 국가 주도의 도시 개발로 인해 형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방법은 국가의 규율을 엄수하여 ‘착한 시민’이 되는 것으로, 소속은 분명하더라도 소속감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찬효, 「최인호의 1960-1970년대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도시 재현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현대소설연구』 5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259-260면.)

것을 믿고 기다렸으나 실패로 끝난다. 이는 타자에 대한 믿음이 논리적 근거나 필연적 확실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연성과 불확실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실현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믿음을 보냄-믿음에 응함'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성이다. 병태의 '기다림'은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자의 개별성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태도이자, 응답의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소통을 희구하는 의지에 해당한다. 이는 유신체제의 압축적이고 일방향적인 시간관에서 벗어나 공동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연대의 형식으로 구체화된다.

날아라 새들이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갑자기 지쳐 빠진 버스 속의 승객들이 눈을 떴다. 그리고 그 꼬마를 우울하게 쳐다보았다. 아, 그렇다. 우리에게겐 아이가 있다. 자라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과 같이 다들 고개를 빼어 소년을 보았다.⁵³⁾

「어린이날」에서 병태는 버스 안에서 껌을 팔며 동냥을 하는 소년을 발견한다. 소년은 불우한 가정사가 적힌 쪽지를 승객들에게 돌리고, 슬픈 노래를 불러 동정을 유도한다. 그러나 승객들은 소년을 외면하며 아무도 껌을 사지 않는다. 앞서 병태는 버스를 타기 전 장래에 무엇이 되어있을지 고민하며 우울감에 잠겨있었다. 이에 소년을 대하는 승객들의 태도와 얼굴에 드리워진 우울한 표정 역시 비관적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병태와 승객들에게 있어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일은 버스

53)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앞의 책, 243면.

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목적지에 정착하듯이 선형적 시간 구조 속에서 고정된 궤도를 따르는 일에 가깝다.

그러나 병태는 소년에게 어린이날 노래를 힘차게 부를 것을 권유하고, 버스 안에 “우리들은 자란다”라는 가사가 울려 퍼진다. 위의 인용문은 어린이날 노래를 통해 현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낙관적 가능성이 승객들에게 환기되는 장면이다. ‘자라남’은 ‘기다림’을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으로 전유하는 방식으로서, 진보적 시간관 속에서 소외된 개인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공동의 미래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무서운 속도로 정해진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수렴’의 과정과 구별되며, 고정된 완결태의 부재를 통해 ‘자유’의 실현이 끝없이 증식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된다.⁵⁴⁾ 따라서 ‘기다림’은 유신체제가 강제한 즉시성과 결과 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적 시간성으로 기능하며, 타자의 존재를 그 자체로 긍정하는 관계적 태도에서 출발해 공동체의 전망을 미완의 가능성으로 열어두는 계기로 확장된다.

병태 씨와 영자 씨. 담에, 이담에 우리 또 만나기로 합시다. 이담에 우리들이 자라서 컸을 때, 커서 사회에 나가 이 분야 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시대가 왔을 때 무엇이 과연 옳고 그른가. 무엇이 과연 틀린 소리고 맞는 소리인가 밝혀질 테니까 우리 그때 술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그때쯤엔 병태 씨와 영자 씨는 결혼을 했겠지요. 영자 씨 그분은 지금은 콧대가 좀 높긴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뭐. 병태 씨. 곧 군대 가시겠고 곧 졸업하셔서 취직하시겠죠. 철학과 나오셨다고 고민하세요. 얼마나 근사한 과예요. 인생은 나그넷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열심히 연구하세요.⁵⁵⁾

54) 리처드 로티, 앞의 책, 28면.

55)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앞의 책, 250-251면.

「병태와 영자」는 『바보들의 행진』의 마지막 에피소드이며, 작가 최인호가 등장인물로 개입하는 메타 소설의 형식을 취한다. 병태와 최인호는 대학생 청년과 청년문화를 둘러싼 편견에 대해 직접 대화하며, 이에 대해 최인호는 “우리들이 자라서 컸을 때” 이후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미룬다. 이는 시간의 경과와 경험의 축적을 통해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는 의미의 중층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이 공존할 수 있는 미완으로서의 공동체를 탐색하는 시도이다. 병태와 영자의 미래에 관한 서술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하다. 최인호는 ‘결혼·군대·졸업·취직’이라는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규범적 생애 과정을 언급하면서도, ‘~했겠지요’ 혹은 ‘~하시겠죠’와 같은 추정형 어미를 통해 이를 하나의 가능한 선택지로 상대화시킨다. 이는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농담조의 조언과 겹쳐지면서,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전망은 완성된 형태가 아닌 이동과 탐색의 과정으로 재정의된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변혁의 시점을 현재가 아닌 미래로 미루거나, 그 이행의 주체가 되려 하지 않는 작가의 자세는 “일체의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⁵⁶⁾ 이처럼 정답과 오답을 보류함으로써 발생하는 미결정성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최인호가 상상하는 병태와 영자와의 재회 역시 서로 다른 삶의 경로를 그리면서도, 소통이 가능한 공통의 지평 속에서 결론의 부재를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 이처럼 ‘기다림’의 대안적 시간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과정 중에 있는 미완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새로운 사건-사건의 해결’의 구도를 취하고 있는⁵⁷⁾ 에피소드에서 대학생 청년은 비관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우리들의 시대’를 기다리는

56) 고경선, 「최인호 초기소설에 나타난 공포와 일탈의 감각-바르트의 ‘중립’ 개념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44, 돈암어문학회, 2023, 206면.

57) 김경양, 앞의 글, 35면.

태도를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성은 1970년대 압축 성장 체제가 강요한 진보적 시간관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한다. ‘기다림’은 타자성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태도이자, 응답의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관계 맺기를 모색하는 의지로 나타났다. 또한 ‘기다림’은 ‘자라남’이라는 낙관적 가능성으로 전유되어 공동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연대의 형식으로 자리하면서도, 그 전망을 미완의 과정으로 열어두는 계기로 확장된다. 이를 통해 작품이 제시하는 ‘우리들의 시대’는 개별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그 본질로 삼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최인호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공동체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최인호는 유신체제의 정치경제적 집산화 논리에 의해 소외된 개인의 삶을 정치하게 들여다보는 것과 동시에, ‘국민’이나 ‘민중’이라는 단일한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 주변부적 존재를 서사의 중심에 배치하는 소설적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당대 사회의 지배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1970년대 청년문화와 이를 향유하는 대학생 청년의 일상을 소설 속에 재현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 글은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대학생 청년이 지식인 엘리트로서의 지위와 불화하는 양상을 살피고, 이것이 공동체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음을 밝혔다. 이는 1970년대 유신체제와 민족·민중주의가 요청한 집단적 결속을 넘어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하는 문학적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이 작품에서 청년문화는 퇴폐와 일탈의 전형이 아닌, 차이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계기로 기능했다. 작품 속 대학생 청년은 유신체제의 금지 속에서도 청년문화를 자기 정체성의 표현 양식으로 향유하며 사

적 자율성을 모색했다. 이들이 지향한 자유주의는 공허한 유희나 개인주의로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관계성을 동반했다. 그러나 대학생 청년은 유신체제의 동일화 전략을 비판하면서도, 지식인 엘리트 중심의 민족·민중주의가 지향한 저항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들의 경계적 위치와 비행위성은 배제의 논리에 기반한 담론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지우고, 개방적 공동체를 모색하는 동력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는 ‘기다림’이라는 대안적 시간성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기다림’은 1970년대 압축 성장 체제의 진보적 시간관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의 미래를 새롭게 구상하기 위한 연대의 형식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전망은 동일한 이념이나 목적에의 도달이 아닌, 미결정성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본질로 삼는다.

1970년대는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인한 정치적 억압과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민중의 고통이 시대적 긴급성을 이루던 시기였다. 문학이 현실 참여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대 문단의 공통 감각은 이념적 강박을 넘어서는 윤리적 책무에 가까웠다. 따라서 최인호의 청년 서사와 그가 제시한 공동체의 의미는 당대의 시선에서 이질적인 흐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체제가 구축한 총체성 바깥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탐색한 문학적 시도는 현재적 관점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바보들의 행진』은 사적 자율성과 공동체적 연대를 조율하려는 작가 의식을 통해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생산하는 서사적 공간을 마련한다. 대학생 청년은 때때로 단자적 의식으로 기울어지면서도, 각자의 특이성을 유지한 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느슨한 연결망을 형성하며 ‘따로 또 같이’ 존재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구현하였다.

이 작품에서 회귀되고 있는 공동체는 최인호 문학 전반에 나타난 독특한 타자 인식을 해명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주체로서의 개인의 의미에 집중되어 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다. 또한 현실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부재

하디는 이유로 문학성의 미달을 지적받아 온 신문 연재소설이 내용과 형식의 자율성을 매개로 새로운 공동체적 상상력을 탐색하는 유효한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드러냈다. 이처럼 『바보들의 행진』을 공동체라는 주제어를 통해 새롭게 조망하는 과정은 1970년대 민족문학과 리얼리즘 문학이 구축한 공동체의 표상뿐만 아니라,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을 구별하는 위계를 넘어서 당대 문학장의 내적 다양성을 복원하는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예문관, 1974.
_____, 『최인호 에세이집』, 주부생활사, 1976.
_____, 「청년문화 선언」, 『한국일보』, 1974.4.24.

2. 단행본

- 권보드레·천정환, 『1960년을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상상, 2012.
권보드레 외 4명, 『1970 박정희 모더니즘-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상상, 2015.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20.
리처드 로티, 김동식·이유선 역,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 사월의 책, 2020.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장-뤽 낭시, 박준상 역, 『무위의 공동체』, 그린비, 2022.
조르조 아감벤, 김향 역, 『예외상태』, 새물결, 2009.
_____, 이경진 역, 『도래하는 공동체』, 꾸리에북스, 2014.

3. 논문 및 평론

- 강숙영, 「최인호 원작 영화에 나타난 ‘고래’의 의미와 검열 상상-『바보들의 행진』, 『고래사냥』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70, 한국비평문학회, 2018, 7-30면.
고경선, 「최인호 초기소설에 나타난 공포와 일탈의 감각-바르트의 ‘증립’ 개념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44, 돈암어문학회, 2023, 189-218면.
고봉준, 「근대문학과 공동체, 그 이후-‘외부성의 공동체’를 위한 시론」, 『상허학보』 33, 상허학회, 2011, 31-67면.
김경양, 「최인호의 신문연재소설 연구-『별들의 고향』, 『바보들의 행진』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성환, 「1970년대 대중서사의 전략적 변화」,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53-192면.
김원규, 「소설 『바보들의 행진』에 나타난 유희하는 대학생 주체(들)-‘웃음’의 의미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78,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193-221면.
김지윤, 「최인호 문학에 나타난 개인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영화적 변용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한국문

- 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357-381면.
- 박수현, 「1970년대 한국 소설과 망탈리테」,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박찬효, 「최인호의 1960-1970년대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도시 재현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현대소설연구』 5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247-278면.
- 보메이, 「1970년대의 검열 정책과 대중 저항으로 대중소설 『바보들의 행진』의 영화화 과정에서 창조된 '영철' 캐릭터에 대한 연구」, 『인문과 예술』 16, 인문예술학회, 2024, 155-179면.
- 서세린, 「합치라는 환영-대학생 담론과 1970년대 최인호 문학」, 『사이間SAI』 32,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161-192면.
- 소영현, 「대학생 담론을 보라4·19 정신의 소유권에 관한 일고찰」, 『문학과사회』 23(1), 문학과지성사, 2010, 260-274면.
-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1970년대 청년문화/문학의 스타일과 소비풍속」,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419-445면.
- 심재욱, 「최인호 문학의 명량성과 미학적 정치성 연구-1970년대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학의 문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안선영, 「최인호의 소설과 각색 시나리오의 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오제연, 「전인적 지도자 양성에서 고급 기술인력 양성으로-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의 대학의 위상 변화」, 『역사비평』 104, 역사비평사, 2013, 36-64면.
- 윤정화, 「1970년대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미국문화」, 『비평문학』 53, 한국비평문학회, 2014, 155-182면.
- 이문재, 「"독자는 절대 속일 수 없다"-《문학사상》과 최인호-창사 30주년 특별대담」, 『문학사상』 351, 문학사상사, 2002, 125-141면.
- 이수향, 「1970-80년대 최인호 소설과 영화의 각색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임소영, 「최인호 대중소설 연구-『바보들의 행진』, 『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장종주, 「1970년대 최인호 소설의 뉴 웨이브 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전지은, 「서사 텍스트와 매체의 은유적 역학관계 연구-1970년대 소설과 영화의 매체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주창윤,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3), 언론과 사회, 2006, 73-105면.
- 최은영, 「1970년대 대중소설의 '청년' 표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Abstract>

The Meaning of Community in Choi In-ho's Novel *The March of Fools*

Baek, Jo-A · Seo, Se-Rim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pt of community in Choi In-ho's novel *The March of Fools*. Choi In-ho challenges the systemic totality of the 1970's South Korean regime by reconstructing youth culture outside the intellectual elite's discourse of cultivation. The novel's college youth navigate identity and societal roles through engagement with youth cultural phenomena, critiquing the communities they inhabit by confronting their status as intellectual elites.

The novel transcends the homogenized unity imposed by the Yushin regime and Minjung-Nationalism, envisioning a community where individuals coexist as "separate yet together" through transient encounters and incomplete relationships. By embracing youth culture and non-action, the characters seek a community that acknowledges individual differences while fostering coexistence—a vision sustained by the fluid temporality of "waiting", resisting fixed forms in favor of an open-ended process.

Choi In-ho's narrative interrogates, "How can community be reimagined?". Rejecting marginalization, the protagonist's inner consciousness proposes a balance between private autonomy and collective solidarity. This reinterpretation of the "other" expands Choi In-ho studies beyond individualistic frameworks, highlighting the layered and diverse representations of community in 1970's literature.

Key words: Choi In-ho, *The March of Fools*, Community, College student,
Youth Culture, Non-action, Openness, Waiting

투 고 일: 2025년 8월 11일

심 사 일: 2025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25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2025년 9월 28일